

“새벽 여명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지역 예술계 밝히고 싶어”

정다정·신예진·윤채원·김지선

전남대 대학원 음악학과 4인

현악4중주단 '콰르텟 오브' 창단

'오브'는 프랑스어로 새벽 의미

3월5일 금호아트홀서 창단연주회

“오브(Aube)는 프랑스어로 '시작'과 '새벽'이라는 뜻을 함의해요. '콰르텟 오브'를 팀명으로 정한 까닭은 조금씩 밝아오는 여명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지역 예술계를 잔잔히 밝혔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죠.”

21일 광주 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현악 4중주단 '콰르텟 오브' 정다정(27) 대표의 말이다.

콰르텟 오브는 대표이자 제1바이올린 연주자인 정 씨를 비롯해 신예진(26·바이올린), 윤채원(23·비올라), 김지선(25·첼로) 등 총 네 명의 여성 연주자로 꾸려진 팀이다. 전남대 음악학과 동문이자 같은 대학원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 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가며 어느 순간 “우리 같이 음악해보자”는 꿈을 현실화했다. 창단 소식을 듣고 지도교수가 연습실을 내줄 만큼 주위의 기대가 크다.

창단 연주회가 얼마 남지 않아 야간 연습을 한 탓에 지쳐 보이는 얼굴들이었다. “2주가량 남은 창단 연주회를 위해 밤샘 연습도 마다하지 않는 다”는 정 대표의 말에서 평생에 한 번뿐일 데뷔 무대의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전해졌다.

“어떤 팀을 추구하느냐”는 질문에 “제 2의 에머슨”, “제 2의 야나체크” 등 유수의 스트링 콰르텟을 수식으로 달기 보다, 수식이 없이 콰르텟 오브라는 이름 자체로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들의 창단 무대는 오는 3월 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2번 C단조, D.703 콰르텟자조’부터 ‘황제’라는 부제로 잘 알려진 하이든 ‘현악 4중주 C장조 Op.76 3번’, 베토벤 ‘현악 4중주 4번 C단조 Op.18번’까지 실내악 현악 4중주 7권에 충실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정 대표는 “기본에 충실한 레퍼토리를 선정했는데, 흑역사를 없애고 싶어서 실력이 크게 탄로 날 수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만큼 피나는 노력으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다”고 했다.

단원 가운데 신예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력에 눈길이 간다.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퍼스트)을 맡아 왔는데 콰르텟 오브에서는 멜로디 리드보다 반주에 주력하는 세컨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오케스트라 중심’에서 ‘꽃반치’으로 역



21일 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콰르텟 오브'. 왼쪽부터 정다정 대표, 신예진, 김지선, 윤채원.

<콰르텟 오브 제공>

할이 바뀐 데 대한 낯설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신 씨는 “세컨 바이올린은 퍼스트가 그린 밑그림을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하는 역할에 가깝다”며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역할부터 보조하는 역할까지, 오히려 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악적 색채, 개성을 जो출해 가며 ‘원 팀’이 되려 노력 중이다. 다른 악기 악보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총보(full score)’를 숙지하며 바이올리니스트가 비올라를, 첼리스트가 바이올린을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연습할 때는 오케스트라의 외성(주멜로디)과 내성(악기음) 간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넷의 조화부터 둘의 조화까지 스트링 콰르텟은 여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죠. ‘한 사람이 돼 스무 개 손가락으로 네 개 악기를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습에 임하는 김지선 첼리스트의 견해다. 각 악기들이 하나가 되면서도, 파트별로 개성을 잃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콰르텟 오브 창단 연주회는 전석 초대 진행.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로컬 래퍼들 한자리에 ‘붐뱁 스테이지’

광주 힙합브랜드 ‘1187’, 24일 전남대 후문 부드러운직선

드럼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붐뱁은 1990년대 중반 힙합의 황금기를 이끈 장르다. 빠르고 화려한 트랩 장르와는 달리, 둔탁하고 반복적인 사운드는 고유한 매력을 발산한다.

광주 로컬무브먼트를 지향하는 힙합팀 ‘1187(대표 이다운)’가 붐뱁 사운드로 가득 채운 랩 스테이지를 마련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전남대 후문 부드러운직선(북구 호동로 22-1)에서 펼쳐지는 ‘랩스테이지 2: Boom Bap Stage’가 그것.

공연은 광주·전남 로컬 래퍼들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다. 랩네임 ‘SoMun’, ‘잭 퓨어’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힙합 아티스트 ‘U-

SICK’, 전주 출신의 ‘9rm(구름)’, ‘cubana hembo’, ‘렌틸 빈’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총 6명의 아티스트가 개인당 4~5곡을 선보인다. 렌틸 빈은 ‘Till I die’, 잭 퓨어는 ‘Like That’, 유식은 자전적인 작품 ‘김유식’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 힙합 브랜드를 기치로 내거는 ‘1187’은 무등산 정상 천왕봉의 해발고도(1187m)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난해 론칭했다. 광주·전남에서 12년째 힙합 활동을 지속해 온 이다운(랩네임 Lockda)씨가 주축이 됐으며 그동안 비트 컴피티션, 힙합 싸이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다운 대표는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름이 무



대표 이다운 Lockda 래퍼 JackPure

색하지 않게, 지방에서도 힙합 등 서브컬처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며 “로컬에서 활동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의 존재와 이력에 관심을 보내주시고, 공연장에 걸음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장료 현매 1만 원, 사전 예매 시 20% 할인.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 회원 모집

역량 있는 디자인 인재를 선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KDM+)의 5기 회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소재 대학의 디자인 관련 전공 2학년 이상 학생이며 3월 12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KDM+는 지역 대학생 가운데 역량있는 디자인 인재를 선발, 세계

일류 수준의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실무형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회원들은 2년간 디자인 창작 스튜디오를 비롯해 디자인 연구, 시제품 제작, 전문 멘토링, 디자인 특강, 국제 디자인 공모전 출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희망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KDM+를 통해 지역 기업과 협업한 산·학 프로젝트 3건을 비롯해

디자인 상품개발 8건을 비롯해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 7건, 지식재산권 출원 등 13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는 참여회원들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하고, 수료회원 16명 가운데 12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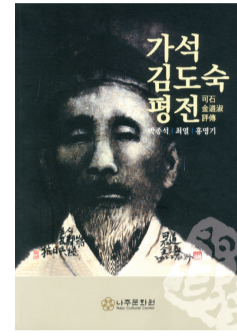
송진희 원장은 “KDM+는 역량있는 디자인 인재를 발굴해 실무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역의 역량있는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총과 붓으로 의병 투쟁 ‘가석 김도숙 평전’

나주문화원 발간...박종석 호남회화연구소장 등 참여

나주 출신 가석(可石) 김도숙(1872~1944)은 구한말 심남일 의병장 의진에서 도통장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의병지사이자 문인이었다. 그는 총과 붓으로 의병활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호남 서화가였다.



가석 김도숙의 삶과 예술, 의병 투쟁 등 일대기를 다룬 평전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박종석 화가(호남회화연구소장), 최열 미술평론가,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가 펴낸 ‘가석 김도숙 평전’은 김도숙의 개인사와 항일운동사를 오롯이 담고 있다. 이번 책은 나주문화원의 기획 및 후원, 아시아문화재단의 관심으로 출간됐다.

박 작가는 이번 평전을 펴내게 된 계기에 대해 “역사적 인물 가운데 조명되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국운이 쇠태해가는 시기, 한말의 의병 지사들도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항일 투쟁의 흔적이 없으면 숭고한 정신도 묻히고 사라질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기록이 있다 해도 가난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유족이나 후학들의 무관심으로 소리 없이 뒤안길로 묻히는 사례가 조금의 현실”이라며 “독립투쟁에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한 호국영령들의 대의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가석 선생은 1872년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서 태어났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라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박 소장에 따르면 가석은 현재 다른 이가 소유자로 돼 있으며, 현대식 건물로 개조된 철계 지붕과 벽돌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 작가가 호남회화사에서 발굴되지 않은 서화 인물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93년 조선대 순수미술학과 졸업논문 ‘학포 양평손의 예술과 사적 고찰’을 쓰면서였다. 이후 그는 염제 송태희, 석현 박은용 등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책을 발간했다.

이후 김원표 선생을 통해 가석의 ‘노안도’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김



‘노안도’

달신닷컴에 연재 중인 미술평론가 최열의 원고와 접하고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실 한국회화사에서 호남 서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밀정이 횡행하던 식민지 시절과 나라뒤통의 지필묵으로 독립의지를 표현했던 김도숙 작품들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의 작품들 가운데 ‘노안도’와 ‘매화도’, ‘괴송도’ 그리고 ‘사군자’의 작품은 당대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지만 ‘노안도’의 같대는 동세와 필선의 창끝 같은 결기가 서려 있고 화제의 글씨 또한 가석체라 할 수 있다.”

평전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문인화에 대한 것이다. ‘노안도’를 비롯해 ‘매화도’, ‘괴송도’, ‘사군자’는 당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특히 ‘노안도’와 같대는 동세와 필선에 창끝 같은 결기가 서려 있다고 평가된다.

최열 미술평론가는 “김도숙의 새와 같은 모두가 살아 있어 생동감이 뛰어난 데다 가벼운 필지와 안정된 배치가 돋보여 완숙한 경지에 이른 솜씨가 잘 보이는 걸작”이라고 평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갯돌’ 문관수 대표 ‘뿌리 깊은 나무상’

목포서 창단...마당극·거리극 전파

극단 ‘갯돌(대표 문관수·사진)’이 거리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뿌리 깊은 나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갯돌’은 서울 경계없는예술센터 한국거리예술협회(이사장 신혜원)가 거리예술을 지켜온 단체·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뿌리 깊은 나무상에 선정돼, 21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1981년 전남 목포에서 창단한 갯돌은 올해 43년 차를 맞은 중견 극단이다. 그동안 마당극, 거리극 등을 전파하는 기수 역할을 맡아 왔으며 ‘목포세계마당 페스티벌’을 23번째 개최해 왔다. 조선시대 어물장수 문순득을 기리는 ‘신안국제문순득 축제’도 주관하고 있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 예술감독, 목포항구축제 추진위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선 후기 지리지·고려 청동 북 보물 지정

문화재청, ‘여지도서’ 등 7건

조선 후기에 각 지역에서 만든 자료를 모아 만든 지리지, 고려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북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조선 영조(재위 1724~1776) 때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 자료인 ‘여지도서’(輿地圖書) 등 총 7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지도서는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와 역사·지리를 연구할 때 필수적인 자료다. 영조 대에 각 군현에서 작성한 읍지(邑誌)한 고을의 연혁, 지리, 풍속 등을 기록한 책을 모아 55책으로 만든 것으로, 1760년대 전후에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지도서’는 기존 지리지와 달리 각 군현 읍지 앞에 지도가 함께 실린 점이 특징이다.



행위위원장, 5·18광주민중항쟁기념 공연 총연출 등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자랑스러운 6월인상, 한국민족극협회 뒷패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제33회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에서 최고 영예상 ‘민족광대상’을 연속으로 받았다.

문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거리예술, 민족예술의 지평을 넓혀 범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며 “2024년에도 일선에서 거리예술의 가치를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천수원’명 청동북

것으로 추정하는 청동 북도 보물이 됐다. 북 몸체의 측면에는 ‘정종 7년(1162)인임오년 11월, 아주(亞州) 땅 천수원의 청동북 하나를 13근8냥 무게로 만들어서 들었다.’는 내용을 담은 글자 36자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한 이 자료는 현존하는 유일본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고려 의종(재위 1146~1170) 대인 1162년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 청동 북도 보물이 됐다.